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10, 2016 Vol. 553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0회 정기총회가 11월 7일 윌셔크리스천교회에서 개최됐다.

함께 하는 목사회 만들 것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0회 정기총회 회장 김영구 목사 선출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회장에 김영구 목사가 당선됐다. 김 목사는 제50회 정기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하고 회원들의 만장일치 기립박수를 받으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김 목사는 당선 직후 "이미 모여 있는 소수의 사람이 끌고 가는 목사회가 아니라 찾아다니며 함께 어우러지는 목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목사회는 원래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직을 자동 승계하게 돼 있지만, 수석부회장인 김종용 목사는 이번에 회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목사회는 두 차례 공천위원회 모임을 가졌으나 회장 입후보자가 여전히 없었다. 10월 30일 제3차 모임이 되어서야 부회장 김영구 목사가 입후보했고 공천위는 김 목사를 회장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신임회장 김영구 목사.

김 목사는 총무를 거쳐 부회장에 재임하고 있지만, 수석부회장은 아니기에 사실 회장 후보 자격이 안 된다.

그러나 '회장 공석'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천위는 다른 대안 없이 김 목사를 공천했다. 또 총회는 임원 선거 전에 이에 관한 정관을 개정해 김 목사가 적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정관 제10조 1항에서 '회장은 전회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고 돼 있지만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유고, 목회지 이동, 사임, 제8조 5항의 사실 확인)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개정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 되겠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美대통령 당선

계속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8일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승리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당선이 확정된 후, 승리 연설 단상에 먼저 오른 부통령 런닝메이트 마이크 팬스(57)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

참으로 오랫만에 비종교적인 공식 석상에서 울려퍼지던 의미심장한 한마디였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모든 기독교인들은 동일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부통령 팬스는 인디애나 주지사 출신으로 동성애 합법화 등을 반대해온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선 투표 전에는 美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 수성을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공화당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선택을 독려했다.

사회적으로는 제시 벤투라(기성 정치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혐오감) 효과의 '변화'를 요구하는 백인과 부동층이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다는 분석이 일반적인 견해 중 하나다.

그러나, 통계학상으로 나온 실제 투표 행사 결과 수치는 보이지 않는 종교적 신념, '믿음(Faith)'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던 역사적인 대선이기도 했다.

상하 양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고 트럼프는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하며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뉴욕 맨해튼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뒷쪽으로 부통령 런닝 메이트인 마이크 펜스의 모습도 보인다. ⓒCNN보도 화면 캡쳐

저명한 복음주의 작가이며 명망높은 리버티 대학의 전 시니어 부총장 및 교목이었던 자니 무어(Johnnie Moore)는 대선이 끝난 직후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보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미래의 종교 자유에 대한 염려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공화당 트럼프의 선택은 최선이 아닌 차선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중단없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영인 기자

"새성전에서 더욱 열심히 복음 전할 터"

남가주순복음교회…새성전에서 감사예배 드려

남가주순복음교회(담임 박재만 목사)가 예배 장소를 이전했다.

9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는 그동안 사이프러스 시의 한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려 왔으나 건물이 매각되면서 급하게 예배 장소를 이전했다. 새 예배 장소는 기존 장소에서 서쪽으로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애나하임 시 비치 길과 링컨 길이 만나는 곳(3111 W. Orange Ave. #202 Anaheim, CA 92804)에 있다.

6일(주일) 오후에 드린 이전 감사예배에서는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가 설교했다. 진 목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다(막11:15~19)'란 설교에서 새 예배당에 가득한 성도들을 향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교회를 섬기라"고 당부하는 한편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평적으로 볼 때는 위기일지 몰라도 기도를 통해 수직적 세계관이 열리면 위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전했다.

박재만 담임목사는 "예배 장소를 이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사설,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추수감사 특별 새벽 부흥회
"최상의 감사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 일시: 2016.11.14(월) ~ 11.19(토)
(월 ~ 금 5:20am/토 6:00am)
• 장소: 은혜한인교회본당(비젼센터)
• 강사: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한기홍 담임목사 설교방송

KSCI CH 18.1	오전 08:00(주 일)
TIMEWERNER CH 18	오전 08:00(주 일)
LA 지역 케이블 방송 CH 18	오전 08:00(주 일)
DIRECT TV CH 18	오전 08:00(주 일)
DISHNETWORK CH 8017	오전 08:00(주 일)
JSTV 미국전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SAN DIEGO RADIO SEOUL AM 1450	오전 6:00(화요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CTS 미국(DIREC TV) CH 2092	오후 08: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JSTV 미국전역 CH 668	오후 1:30, 5:30, 9:4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미국(DIREC 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CTS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pm
은혜기도원 TEL:951)277-1188 /11985 Indian Truck Trail,CA 92883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남가주순복음교회가 예배 장소를 이전하며 11월 6일 오후 감사예배를 드렸다.

남가주순복음교회…새성전에서 감사예배 드려

[1면으로부터 계속]그러면서 박 목사는 또 "새 예배 장소에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고 베데스다순복음교회 배현성 목사,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이영규 전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식순을 맡아 축하했다.

또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이호우 수석부회장, 김기동 전 회장도 참석했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 이전한 지역의 전 주 하원의원 영 김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문의: 714-952-0191

김준형 기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후원의 밤이 대학 채플실에서 열렸다.

미주장신대 제5회 후원의 밤 열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제5회 후원의 밤이 7일 저녁 6시 30분 대학 채플실에서 열렸다.

후원의 밤에서는 이 대학이 속해 있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유영기 목사가 축사를 전했고 이사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개회기도를 했다. 동문 박지범 목사와 조수연 학생 부부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듀엣으로 부른 후 참석자들은 학교 소개 동영상을 시청했다.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한아영 학생과 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요셉 학생이 후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구경모 교무처장이 학교의 발전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본격적인 후원 약정의 시간에는 대학 중창단이 '넬라 판타지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등을 불렀다. 지휘는 교회음악학과장인 조혜정 교수가 맡았다.

이어 이상명 총장이 감사 인사를 전함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NPO(비영리 단체) 및 교회 회계 담당자를 위한 퀵북 강좌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및 교회 회계 담당자를 위한 실제적인 회계관리를 위한 퀵북QuickBooks) 강좌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은혜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의 GL2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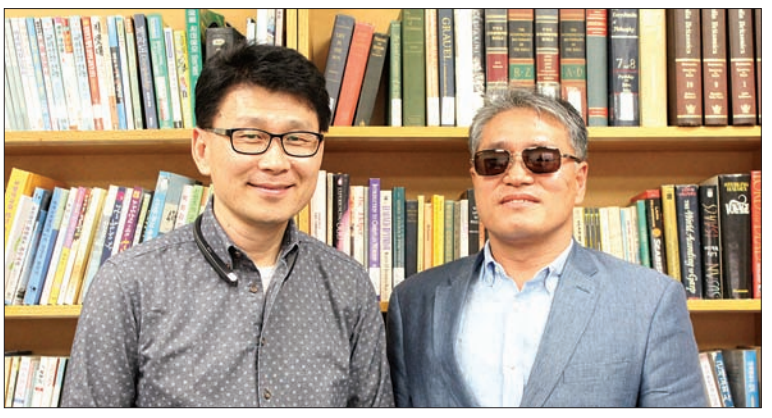
이번 강의를 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IT, NPO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일시: 11월 18일(금), 19일(토) 오후 1시~3시까지

*준비물: 개인 컴퓨터

*문의: 714-393-4595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제9회 정기연주회를 위한 설명회가 10월 31일 열렸다.

"시각장애인에게 희망을"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장학기금 후원 음악회

비전시각장애인센터(대표 추영수 목사)가 제14회 시각장애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찬양의 밤을 11월 20일(주일) 오후 1시 30분 LA 한인타운 인근의 마가교회(2515 Beverly Bl.)와 25일(금) 오후 7시 30분 브레아의 나침반교회(1200 W. Lambert Rd.)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 단체는 14년 전부터 매년 한 차례 장학기금을 위한 후원 음악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 장학생 3명에게 500불에서 1,000불, 근로 장학생 2명에게 3,600달러씩 장학금을 주는 것이 목표다.

이번 음악회에는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메인 게스트로 출연하며 주광옥합창단, 하이테너 정화영 씨(전 바디매오중창단), 피아니스트 송은영 씨도 출연한다.

특히 이 센터에서 하모니카를 배운 비전하모니스 팀이 아름다운 하모니카 합주를 선보인다.

*문의: 213-550-8778

김준형 기자

"함께 하는 목사회 만들 것"

[1면으로부터 계속] 회장 선출과 관련된 이 개정안에서 명시된 제8조 5항 역시 이번에 개정된 조항으로 '모든 임원은 목사 안수 후 법적인 문제와 현저한 윤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목사회는 '회장 없는 목사회'가 될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수석부회장 입후보자가 없었다. 김영구 목사는 "1.5세인 샘 신 목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회장으로 재임 중인 신 목사는 베트남 선교 중이라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수석부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 김 목사는 "신 목사가 수석부회장 입후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춘 후 공천위에 제출하면 공천위가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시 수석부회장에 자동 임명되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고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허락했다.

이번에 목사회가 개정한 정관은 최근 남가주교협에서 발생했던 임원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을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이 많았다. 먼저 제8조 5항에서 임원이 되려면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이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제11조 2항을 신설해 '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현저한 부당 행위, 본회의 업무 방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원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0조 2항에서는 '제8조 5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본회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고도 명시해 놓았다.

한편, 신임회장 김 목사는 40세에 소명을 받은 늦깎이 목회자다. TV에서 북한 동포들의 인권 유린 상황을 접한 후 그들에 대한 소명을 받고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다. 2010년 나눔장로교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엔키아선교회를 창립해 비기독교인 탈북자들과 그 자녀들까지 섬기고 있다.

김준형 기자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 (949) 329-8222
Email :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GMU추수감사 초청의 밤 (Open House)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정회원

초청의 밤 (Open House)
일시 : 11월 22일(화) 7:00pm
장소 : GMU 예배실(은혜한인교회 Miracle center)
행사내용:
– 학교탐방(Camus tour)
– 학위인가 및 과정 소개
–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 학생 비자 소개
–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소개
–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 학업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특별상품 추첨
✔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

선교학 박사 과정(D.Miss, 유학생 I-20 발급)
2016년 하반기~2017년 상반기 집중 강의
과목1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상황화 연구(12/5~1/3, 매주 월요일 5주)
과목2 : 다문화영성(2017년 1/9~13, 월~금)
과목3 : 가정은 선교지(2017년 1/16~20, 월~금)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2017 봄학기 신입생 접수 시작
■ 2017 봄 학기 수업 시작 : 2017년 1월 30일

학위과정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 선교학 석사 (MA ICS)
	• 신학사(BA)
특 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English Track • LA 연장클라스에서 수업가능 •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연장클라스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10월 30일 얼바인중앙교회에서 이상대 담임목사 위임 및 임직 감사예배가 있었다.

얼바인중앙교회 위임 및 임직 감사예배 드려

지난 10월 30일 주일 오후 4시 얼바인중앙교회 이상대 목사가 담임목사로 위임받고 장로, 안수집사, 시무 권사 등이 임직했다.

위임 및 임직 감사예배에는 PCA 한인서남노회 소속인 남가주사랑의교회 노창수 목사, 뉴라이프교회 박영배 목사, 얼바인 디사이플교회 고현종 목사와 함께 캘리포니아신학대학교 김용철 교수, 예은교회 곽건섭 목사도 참석해 축하했다.

먼저 노창수 목사의 사회로 박영배 목사가 "너는 나를 따르라(요 21:22)"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담임목사 위임식이 거행된 직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임직하고 김용철 교수의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교회 측은 "사랑과 관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소: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문의: 714-823-7177
*웹사이트: www.oneicc.org

권 쉘비 기자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이끌었던 교계 지도자들이 이번 기도회에 대한 평가회를 열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강순영 목사, 민승기 목사, 강영수 목사.

"의미 있었던 다민족 기도회"

지난 10월 23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대한 언론사 초청 평가회가 4일 오전에 열렸다.

먼저 참석자 수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갔다. 주최 측은 이번 기도회 참석자를 1,500명~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500명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강 목사는 "기도회 당일 비가내려 참석자들 가운데 발길을 돌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민족 기도회를 표방했지만, 실제 다민족의 참석이 적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남가주의 주요 대형교회들에 동참을 요청하려 한다"고 하는 한편, "지난해에 비해 한인 1.5세, 2세들의 참여는 매우 돋보였다. 이제 미국을 위한 기도 운동을 우리 한인 차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소에 대해서도 평가가 오고 갔다.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이 행사를 연 지 2회째이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행사장 출입까지 큰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안내 요원을 잘 배치하고 행사장 측과 잘 의사소통하겠다"고 했다.

3시간 이상 진행된 기도회 시간에 대해서는 언론사마다 "너무 길었다"는 평가부터 "많은 기도인도자가 나오는 것보다 기도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양한 민족에서, 여러 교단과 교파에서 기도인도자들이 참여하다 보니 신학적, 신앙적 견해 차이로 인해 일부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란 평가에는 "행사 전에 기도인도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10일 은혜한인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평가회를 한 차례 더 열며 이 자리에서 행사 관련 재정을 투명하게 보고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재봉학교 재학생들.

"아프간 재봉학교와 문맹 퇴치 교육"

힘 펀드의 서우석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가장 왕성한 나라 중 하나인 아프간에서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서 대표는 이들에게 재봉기술을 가르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실제로 재봉학교 졸업생들이 5인 가족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수입을 얻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서 대표는 과부들를 위한 재봉학교와 문맹 퇴치 교육을 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는 것이 목표다. 물론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아프간의 특성상 좀 더 많은 고민과 중간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의 기도와 관심, 도움이 필요하다고 서 대표는 강조했다.

현재까지 수백 명의 아프간 여성들이 아프간 지역 3~4곳에서 운영되는 재봉학교를 졸업했다.

서 대표는 이 학교를 전국 50개 지역에 세우는 것이 목표다. 과부들에게 재봉 기술과 글자 읽는 법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그 자녀들까지 교육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문의: 812-236-5695
*이메일:william.seo@hemefund.org

김준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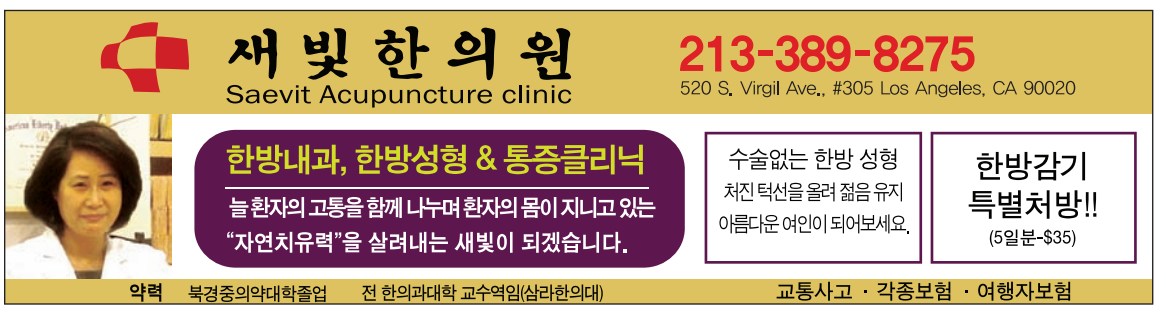
센트럴침례신학교 LA 분교 학생들이 7일 노인양로병원과 미국인 가정을 방문해 채플린 사역을 실습했다. M.Div. 과정과 디플로마 과정 학생들이 직접 채플린의 사역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캔사스 주 쇼니에 있는 센트럴침례신학교는 텍사스, 미주리, 워싱턴,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테네시 등에 한인들을 위한 분교를 두고 있다.

라이프기빙교회 특강 개최… 동성연애의 실체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일

라이프기빙교회가 "동성연애의 실체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일"이란 주제로 특강을 연다.

이 교회 김준범 담임목사가 강의한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고찰하며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 알려준다. 또 자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일도 나누게 된다.

*일시: 11월 14일(월)~16일(수)
*장소: 라이프기빙교회
*주소: 11520 La Mirada Bl. La Mirada, CA 90638
*문의: 714-390-6799 (박재응 목사)



우리 함께 케냐에 '복음씨앗' 뿌려요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케냐에 하나님 사랑 전해

제27차 케냐 단기선교 모습.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임시담임 심우진 목사)가 10월 16일~28일까지 케냐와 우간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무베레 연합교회 선교 베이스 인근의 사역지와 West Pokot 지역의 칼레문양 연합학교 및 선교사역지(김윤곤, 김선귀 선교사)에서 GMA(Global Mission Alliance/이사장 김성택 목사)와 연합으로 단기선교를 실시했다.

이번 선교팀은 3개 교회에서 4명의 목회자와 13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세례식, 목회자 훈련, 티티멧교회 성전 헌당(건축/클리블랜드 중앙장로교회:담임 김성택 목사), VBS, 연합예배, 전도집회, 가정방문 전도, 의료사역, 안경사역, 중보기도사역, 축구대회, 배구대회, 태권도 선교사역과 지카스병 예방사역으로 1,200 켤레의 운동화와 장화를 공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현지인 목회자훈련은 무베레 연합선교센터에서 100여 명의 현지 목회자와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대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합장로교회의 심우진 목사, 쟌 박 목사와 김성택 목사(오하이오 중앙장로교회), 이재영 목사(오하이오 Ghene Christian Church)가 나서서 성령의 능력, 리더십, 선교, 예배 등의 주제강의를 인도했다. 저녁집회는 매일 300여 명이 참석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치유와 전도집회로 진행되었다.

무베레 지역에서 실시된 연합세례식에는 5개 교회의 성도 138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들은 8주 동안 각각의 담임목사로부터 세례교육을 이수했다.

클리블랜드 중앙장로교회가 무베레 지역에 건축한 티티멧교회의 성전 헌당예배는 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대 김성택 목사와 박종호 집사의 십자가 부착, 김성택 목사의 설교, 심우진 목사, 이규종 초대선교사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티티멧 지역의 지카스병 예방사역을 위해 클리블랜드 중앙교회가 준비한 500 켤레의 운동화가 전달되기도 했다.

성전 헌당예배에는 무베레 지역의 추장과 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12년 전에 이곳에 선교가 시작되어 선교센터와 5개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변하며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클리블랜드 중앙장로교회는 커뮤니티로부터 2017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티티멧 고등학교의 스폰서로 추대되어 케냐 교육국에 스폰서로 등록되었다.

VBS 어린이 사역, 태권도 선교, 의료사역, 안경사역 및 중보기도 사역은 무베레 지역의 선교센터, 투위가 교회, 티티멧 교회에서 실시됐으며 지역마다 수많은 현지인들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번 선교에 대해 팀원들은 "지난 17년 동안 케냐 선교의 열매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한다. 우리들이 현지인들에게 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했다.

2017년 제28차 케냐 단기선교는 10월 16일~28일까지 진행된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이규종 선교사(770-856-0939)에게 문의하면 된다.

[아틀란타 앤더슨 김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8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콜레스테롤과 식사

얼마전 미국방송과 한국방송에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논의되면서 많은 일반인들을 혼동시킨 일이 있었다. 필자의 환자들도 가끔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 또는 콜레스테롤이 나쁘지 않다더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방송에 나간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온 오해다.

이런 오해를 부른 것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몇몇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콜레스테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된 음식, 또는 지방이 높은 음식이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보고들 때문이다. 즉 베이컨,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이다.

반면에 콜레스테롤, 그중에서도 특히 중성지방의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된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섭취같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서 혈관에 동맥경화증을 더욱 더 일으키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과다섭취라는 결론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알아온 우리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결론은 콜레스테롤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이 더 온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그런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인자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우리 한국사람의 주된 탄수화물 섭취는 밥의 섭취, 빵, 국수, 떡, 감자 등을 포함하여 과일과 과일쥬스를 포함한 쥬스나 드링크들이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탄수화물은 100% 모두 끊어도 건강에 해를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좋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당뇨의 폭발적인 증가는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당의 섭취를 조심해야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음식섭취에 대한 자료들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것은 피검사에서 본 LDL과 중성지방의 혈중농도는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고 건강에 좋지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혈액검사에서 높이 올라간 LDL과 중성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약을 꼭 복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 연주

장애인 장학기금 마련위한 '2016시애틀 밀알의 밤'

2016 밀알의 밤을 준비한 시애틀 밀알 선교단.

장애인 장학 기금과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2016 밀알의 밤이 지난 4일과 5일, 훼드럴웨이 선교교회(담임 박연담 목사)와 시애틀 은혜장로교회(담임 최용주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올해에는 소프라노 권수현, 김현수, 피아노 조혜경, 박혜상, 강은희, 작곡가 안선, 플룻 김혜주, 고기쁨, 바이올린 천다솜 등 워싱턴주에서 활동하는 여성 교회 음악가들이 출연해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연주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3중 장애인 승욱이 엄마, 김민아 집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장애인들이 가진 어려움에 동참하고 장애인 선교 사역에 함께 하기로 결단했다.

시애틀 밀알선교단장인 장영준 목사는 "밀알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장애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사역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 시애틀 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은 시애틀 밀알에 특별후원금을 전달하고, 시애틀 한인사회의 장애 사역과 복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02년 창단된 시애틀 밀알은 초교파 기독교 장애인 선교단체로 매주 토요일 시애틀과 타코마, 훼드럴웨이에서 장애인과 봉사자 100여 명이 함께 하는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애틀 김브라이언 기자]

오픈청지기재단 지원단체 모집

"접수마감 11월 30일(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사회에 새로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간다. 올해로 6년 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은 올해도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영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프로그램에 집중한다는 의도로 현재 커뮤니티내에서 행해지고 있거나 계획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금 신청서는 오픈청지기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접수마감: 11월 30일(수)까지
*웹사이트: www.openstewardship.com
*문의 : 213-593-4885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hanks Giving

New Life Mission Church
뉴 라이프 선교 교회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하나님과 연결하며 세대간을 연결하고 교회들과 연결하며
세상과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안내

1부(한어 예배)	오전 8:15
2부(영어 예배)	오전 10:00
3부(한어 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예배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45
주일 오전 성경공부	오전 10:00
평일새벽예배	(화~금)새벽 5:30
토요새벽예배	(토)새벽 6:2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박영배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430 E.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1
T.(714) 526-6562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십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 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 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사망의 올무가 되는 욕심

야고보서 1: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정탄생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약혼했던 요셉과 정식 결혼을 하고 낳은 네 아들 중 맏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3:55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빈정 대 기도하고 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햇빛이 흐리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송장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 후 그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른 동생들도 포함한 120명이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기도에 전혀 힘쓴 결과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에 붙들리고 이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되며 행동이 성실하여 충성스러움으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당회장으로 사역한 일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 아주 겸손한 신앙인격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게 하심을 따라 거듭난 심령들,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소망을 목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회개를 했고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을 모셨다 할지라도 죄악의 근성이 아직은 잠재되어 있으며 영영히 없어진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것을 미끼로 그 사람을 시험들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다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부적 압력 박해입니다. 내적으로 잠재된 욕망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 영어로는 템테이션(유혹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험은 외압에 의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앙심을 빼앗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하고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행패와 억압,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순풍에 돛단듯 아무 시련도 없이 천국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환란과 시련, 행패와 고통, 핍박, 여러 가지 억울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고보서 1:3~4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회개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성령을 파송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는 고통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하여금 이 세상 허욕을 완전히 포기하고 초월해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셔서 세상 줄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갖 유혹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잦은 실족의 미끼는 돈, 명예, 권력, 성적유혹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면 왜 시험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마귀가 미워하고 질투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것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18~19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소속관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행패와 환란과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을 믿음으로 타개(打開)하고 극복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많이 치루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은 다른 시험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마귀가 만들어가는 상황에 집착하게 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을 서둘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신앙인이라면 마귀가 아무리 자신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기대와 선망의 자녀로 돋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질투해서 못살게 괴롭히고 시험한다고 깨닫는 영감적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약 1:5).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낮은 형제'란 이 세상 조건으로 가진 것이 없고 명분도 없고 지위도, 지식, 기술도 돈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의 세상 조건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조건은 부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 하늘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의 신앙인격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베풀고 구제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풀에 꽃과 같이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본능적 욕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영생복락의 신령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영감적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9~12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했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유황불에 시달리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眞髓)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17을 보면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hanks Giving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김영구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주소 및 전화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310)404-6219

디사이플교회

Disciple Community Church

고현종 담임목사

www.discipleccc.org

예배시간 안내

1부(장년예배) 주일 오전 8시 30분
2부(장년예배) 주일 오전 10시 30분
3부(영어예배) 주일 오후 12시 20분
4부(젊은이예배) 주일 오후 2시
교육부 주일 오전 10시 30분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평일새벽예배 (화~금)새벽 5시 30분
토요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20분

주소 및 전화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 502-4923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정장수 담임목사

www.olympic-church.or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주소 및 전화

3020 Wilshire Blvd., Suite 160, LA, CA 90010
T.(213)387-1700

피아노 반주자 모집

주님세운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 주일 2부예배(오전 11시) 및 성가대 반주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제출방법 – 서류를 jscoffice01@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2016년 11월 30일(수)

문 의 주님세운교회 사무실 310-325-4020
행정담당 신상희 목사 909-282-2513

해외한인 장로회 **주님세운교회**
Junimseun Church of KPCA
담임목사 박성규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자격조건)
1. 담임목사 3년 혹은 부목사 5년이상 경력 있으신 분
2. 신 분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3. 기 타 : 한국어와 영어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2. 신앙 간증문 : 본인및 사모 가족소개, 성장과정과 신앙생활, 목회비젼과 철학
3.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CD 또는 DVD 2부
4. 추천서 2부(추천인 밀봉 후 날인요망)
5. 제출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11월 5일(토)까지

(제출처)
LA HANMI CHURCH 청빙위원회
전화 : T(626)444-0058-9
주소 : 2727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email: lahanmichurch1@gmail.com
www.lahanmi.com

나성한미교회

• 정운길 칼럼(4)

항상 기뻐하며 웃으면서 사세요

정 운 길 선교사
실버선교회 국제대표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500번 웃으면서 사는데 반해 어른들은 고작 7~10번 웃는다고 한다.

10번 웃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채 안 걸리는데 이렇게 80년 산다고 가정할 때 겨우 101일 웃고 사는 셈이다. 2분 웃는다면 41일 웃고 사는 셈인데 이 웃는 횟수도 50세가 넘으면 현저하게 줄어든다니 평생 겨우 한 달 정도 웃고 사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사람들은 TV보는데 7년, 잠자는데 23년, 일하는데 26년, 공부하는데 10년, 차나 사람을 기다리면서 보내는데 6년, 양치질 화장실 가는데 3년, 근심 걱정하는데 5년 보낸다고 하는데 웃는 시간과 비교하면 너무도 짧은 시간을 웃는데 쓰면서 살고 있다.

중국 송나라 때 유명한 관상가 마의(麻衣)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추운 겨울에도 베옷 하나만 입고 있다고 해서 마의라 했다.

그는 "최악의 관상은 근심 어린 얼굴이고, 최고의 관상은 즐거워하는 웃는 얼굴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관상가들도 선호 대상 1호가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고 한다.

송나라 부호 송청은 "웃음은 사람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불신을 없애 준다. 웃음이야 말로 신뢰를 형성하는 기본이고 최고의 양약이다."라고 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먼저 웃는 사람에게 성공의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웃음을 선택하는 순간 머릿속은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신바람 나고 즐겁게 된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나게 놀면서 깔깔대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숨어 있으며 웃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웃으면 좋다'라는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웃음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요, 성공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이다. 웃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이 열매를 맺고 자신을 건강하게 만든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든지 웃음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실례는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다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미친듯이 웃어보는 것도 모든 염려를 날려 보내는 방법일 것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웃음 치료사와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을 갖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 임상실험을 경험하여 터득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에 자신 있게 웃음을 권할 수 있다.

미국 심리학자이며 동기부여가인 쉐드 햄스테더는 "인간은 하루에 5~6만가지 생각을 한다. 그 중에 75%인 3~4만 가지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 불행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웃음이다"라고 말한다.

마음이 건강을 좌우하고 웃음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김 영 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요즈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인 박근혜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조국이 건강해야 한다. 백성들의 마음이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성숙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금년에는 세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다. 보통은 격년으로 방문했는데 금년에는 뜻밖에도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다. 그 때마다 놀랐던 일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한국교회가 통일을 대비하여 아무 일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갑자가 통일이 되고 북한의 문이 열렸다고 가정해 보자. 통일 전문가들은 적어도 5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동시에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야 한국정부는 10만 명을 수용할 난민캠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10만 명 수용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에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누가 나서서 그들을 돌보아야 할까?

교회 밖에 없다. 그 일을 한국 교회가 해야 한다. 한국의 10만 교회가 자기 분수에 맞게 북한 동포들을 맞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뼛속까지 물들어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복음으로 순화시켜야 한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남쪽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되고 난민들이 내려오면 누가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래서 통일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대로 가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교회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단순히 가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인적 물질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에는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 놀란다. 자기 교회에서 그 말씀 좀 더 자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그 부탁을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곤 한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아직 한국교회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다. 통일은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한국교회들을 위해 우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돈에서 속히 한국정부가 벗어나고 대통령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한국교회들이 시대적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뿌리를 돌보는 지혜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뿌리를 잘 돌보는 것이 지혜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범죄할 때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호9:16)라고 말씀한다. 뿌리가 마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나무의 미래는 뿌리에 달려 있다.

뿌리가 중요한 까닭은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흔들린다.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된다. 또한 뿌리는 흡수하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겨울이 되면 단풍나무는 모든 잎사귀를 떨어뜨린 채 벌거벗은 몸을 갖게 된다. 외부적인 활동을 삼가고 뿌리를 돌보게 된다. 나무에게 겨울은 뿌리를 돌보는 계절이다.

과실수(果實樹)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과실수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한다. 뿌리를 가꾸는 것은 곧 나무의 미래를 가꾸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 영혼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혼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영혼이 죽어 있다면 사람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 겉으로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은 죽어 있는 상태와 같다.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줌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영혼이 되어야 한다. 뿌리 깊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곧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골2:6~7). 성경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영혼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 강변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창49:22; 렘17:7~8). 또한 성경은 성령님을 생수의 강에 비유하고 있다. 성령님의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을 때 우리 영혼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마 4:4). 우리는 말씀을 읽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취하게 된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하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취하도록 하라.

셋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은 지치고 쇠약해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영혼은 힘을 얻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제공해 준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힐 때 견고한 삶은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엡 3:17~18).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디 날마다 뿌리를 돌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빈다.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WHO is he?

개발자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Cr Zn Cr Z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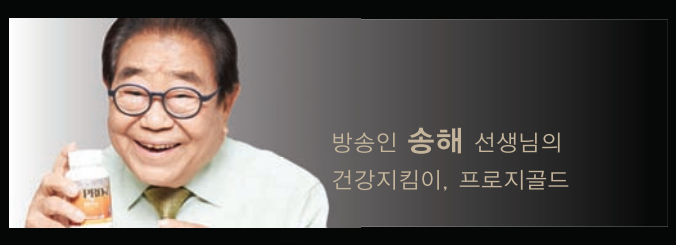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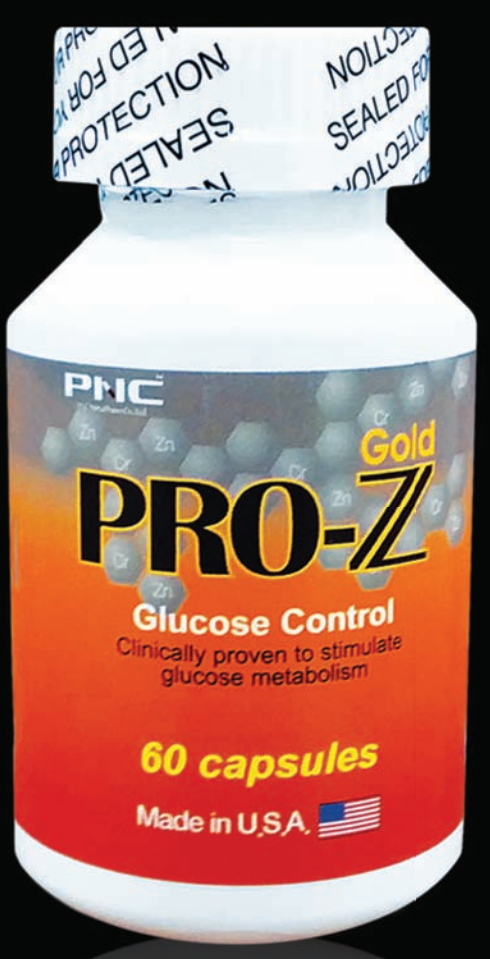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고 베 펄

펄리우드 빅쇼 2016 마지막 총정리... 할인된 가격에 또 50% OFF

11월 4(금)~13일(일) 10일간

"웨스턴 가주마켓 특설매장서 만나요"

고객감사 차원서 무조건 최저가 판매 대행진 성황리에 진행

진주 제품의 대명사 고베펄사에서는 2016년을 보내며 마지막 총정리 초특가 대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고베펄사가 창사 12주년을 맞아 펼치는 이번 '펄리우드 빅쇼'는 올해 마지막 행사다.

이번 대세일 기간에는 요즘 가장 '핫'한 원형 스타일의 초커(Choker) 진주목걸이 등 다양한 진주 비드 목걸이를 대량 방출하고 있다.

고베펄사 측에서는 이 기간 동안 무려 5천여 점을 준비했다는데 그만큼 진주보석의 인기가 여전함을 의미한다.

펄리우드는 진주를 뜻하는 펄(Pearl)과 LA를 상징하는 할리우드의 합성어이다.

지난 봄 4월부터 시작해 3차례에 걸쳐 치러진 '펄리우드 빅쇼' 대세일은 고객들의 큰 성원으로 알차고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다.

고베펄사 측은 이번 행사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고객감사 차원에서 진주보석 구입을 미루거나 망설였던 많은 분들에게 무조건 최저가로 세일한다는 방침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묻지마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베펄사는 올들어 창사 12주년을 맞이해 창사 이래 최대규모의 진주보석을 대방출, 다양하고 풍성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이번이 마지막 총정리라고 강조하면서 서울 강남에서 공수된 진주보석 3종 세트 신제품을 비롯, 다양한 스타일의 진주보석이 전시되는 가운데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보석과 홍산호 인공 핵진주 신제품, 2줄 및 3줄 비드 진주목걸이 등도 이번에 대량으로 세공해 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베펄사에 따르면 그동안 주력상품인 2줄 진주비드 목걸이가 큰 인기를 끌어 매출의 상당폭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원형으로된 초커 진주목걸이가 한국에 이어 올들어 상반기부터 미주에서도 인기를 크게 끌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부터 한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초커 원형 형태의 진주목걸이가 미국에서도 지난 봄부터 인기를 끌더니 2~30대는 물론 40대 이상 한인 동포 여성들의 구입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효자상품으로 등극했다.

특히 이 초커 진주목걸이는 목을 타이트하게 감싸주므로써 패셔니스타의 면모로도 손색이 없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이 초커스타일이 원형이기에 단순한 패션 쥬얼리의 의미를 넘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가정주부 등 일반인 여성들에게도 널리 퍼지면서 그 인기를 실감케하고 있다.

진주보석은 이제 다이아몬드나 순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스타일리쉬한 패션아이템으로 멋을 내기에 손색이 없다. 어느 보석보다도 치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보석 액서사리가 되고 있다.

진주 목걸이는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해 젊은 여성들은 물론 중년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 등 공식석상이나 모임 등에 갈 때에도 필수 아이템으로 꼽힌다.

고베펄사의 관계자는 이번 진주보석 샤핑은 인기 폭발한 이 원형 진주비드 목걸이를 대거 준비했다면서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하고 크리스마스 선물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 펄리우드 빅쇼 총정리 세일

△일시: 2016년 11월 4일(금)~13일(일)
△장소: 웨스턴 가주마켓 특설매장
△주소: 4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웨스턴 &5가)
△영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8시

win HYUNDAI

이제, 제임스 박은
엘몬테 윈 현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HYUNDAI
미국 최고의 워런티
10년 10만 마일

2017 Hyundai Elantra SE – Lease for only **$79** per month plus tax

1 at this offer HH503114
36 month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3,495 cash or trade equity due from customer plus $1500 Lease Cash (must finance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plus $500 Valued Owner Coupon (Customer must be a current registered owner of a Hyundai vehicle may 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Owner Coupon) $5,495 total drive off. No security deposit. Leasse responsible for excess wear and tear and mileage at 20¢ per excess mile after 30,000 total miles.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2016 Hyundai Veloster – Lease for only **$89** per month plus tax

1 at this offer GU286105
36 month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approved credit. $2,995 cash or trade equity due from customer plus $3,000 Lease Cash (must finance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plus $500 Valued Owner Coupon (Customer must be a current registered owner of a Hyundai vehicle may not be combined with Competitive Owner Coupon) $6,495 total drive off. No security deposit. Leasse responsible for excess wear and tear and mileage at 20¢ per excess mile after 30,000 total miles.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not all customers qualify, see dealer for details.

지금 가장 좋은가격에 현대차를 구입하시면
손님이 소속해 계신 교회에 $100을 기부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임스박에게 전화 주십시오

"Broker Deal 환영합니다"

Assurance

James Park 213.839.3332

win HYUNDAI
www.winhyundai.com
3462 N. Peck Rd., El Monte, CA 91731

Peck Road 605 10 N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노화 거스를 수 있다면, 이는 신에 대한 도전?

성경적으로 보는 이스라엘과 구원 계획 세미나 열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종교와사회연구센터가 주관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의학, 법학, 신학이 바라보는 영원한 삶' 주제 심포지엄이 8일 오후 서울 연세대 신학관 2층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정재현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눈앞에 다가온 인간 생명 연장이 과연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를 의학, 법학, 신학의 전공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기조발표는 김소윤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가 '죽음을 극복하는 기술?: 텔로미어와 유전자 가위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전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DNA의 일종인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에 위치하는데, 세포 분열의 횟수에 따라 길이가 짧아지며 일정 길이 이하로 짧아지게 될 경우,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거나 세포자멸을 통해 세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김 교수는 "따라서 텔로미어 길이의 측정을 통해 세포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수명 예측과 연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텔로미어의 길이와 수명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유전자 가위'는 특정한 DNA를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편집기술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 기술은 말 그대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편집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의 유전자 조작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노화의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없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노화하며, 오늘날 발전하는 의학기술은 보다 정교한 질병 치료와 노화를 더디게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며 "그 중 재생의학은 인간의 세포, 조직 또는 장기 등을 복구하거나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인간의 의지로 노화를 거스를 수 있다면 이를 극복하는 인간의 기술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비록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지금 당장 답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가능한 질문을 계속 생각해 보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을 추진

한교연 "이단 배제 전제로 통합 추진위에 위원 파송"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이하 한교연)이 "'이단 배제'를 전제로 (가칭)'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위원을 파송하기로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교연은 이날 오전 제5~8차 임원회를 갖고,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 위원 9인 중, 한교연이 추천할 수 있는 4인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위원 추천은 전·현직 대표회장들에게 위임했다.

임원회는 또 현 시국과 관련, 시국기도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38개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현 시국과 나라를 위해 한 주간을 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합심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제5회기 결산과 제6회기 예산 및 사업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조일래 대표회장이 발의한 '한국사회발전연구소' 설치의 건은 조 대표회장에게 위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제6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양병희 목사를 대신해 제3회기 대표회장인 한영훈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인준했다.

김준형 기자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제4회 일터사명 컨퍼런스 2016 개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제4회 일터사명 컨퍼런스 2016'이 지난 5일~6일까지 인천 온세계교회(담임 김용택 목사)에서 열렸다.

'일터에서 네 신앙을 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크리스천 직장인, 사업가, 전문인들이 참여해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과 업무 성과로 본을 보이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오프닝 메시지를 전한 일터사역연합 대표 방선기 목사는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흩어져서 일터로 나아가야 한다"며 "일터에서 하는 일과 삶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터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일터사명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워 일터 속 크리스천의 사명을 고취하고 일터사역의 붐을 조성하며 관심 교회와 일터사역 단체, 개인의 화합과 연대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조직위원회와 이사회를 구성해 개최됐다.

일터사명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연 1~2차례 목회자와 일터사역 관심 성도들을 위한 일터사명 리더십세미나를 열고, 일터사역 프로그램 개발 및 모델교회를 제시하여 각 교회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교회 맞선 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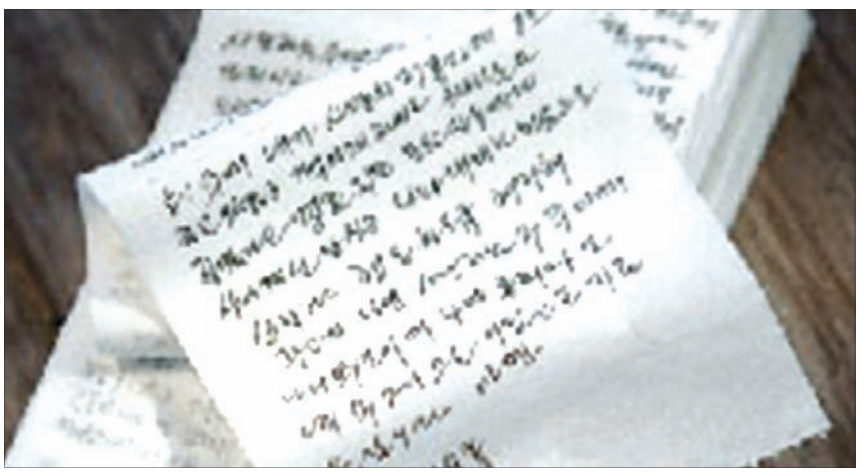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휴지에 성경 구절을 옮겨적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모퉁이돌선교회 제공

北종교박해 피해자, 사망 17.9% 생사 미확인 59.5%

북한인권기록보존소…〈2016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그 사람이 종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들어보니 그 사람이 죽었다고 했어요. 종교를 해 가지고 그 집이 다 떴었는데, 그 여자만 잡혀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죽기 전까지 기도를 하면서 죽었다고 했어요. 기독교였어요. 하나님 믿었다고 했어요. 또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똥물 질질 흘릴 때까지 때리고 패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 사람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여서 말려 죽였다고 했어요. 개고생하면서 죽었다고."

14년째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인 북한의 종교자유에 대해 분석한 연구서 〈2016 북한종교자유백서〉가 발간됐다.

이 백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이 9번째 백서이다. 백서에는 2007년 이후 입국한 탈북민 11,730명의 종교자유 인식 조사와 '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중인 사건 65,282건과 인물 38,238명 중 종교자유 침해 관련 사건 1,247건과 인물 1,040명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겼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한 11,109명 중 40명을 제외한 11,069명(99.6%)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평양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 가정예배 처소가 있는가?' 문항에도 응답자 11,249명 중 11,109명(98.8%)이 '없다'고 답했다. '있다'고 답한 140명(1.2%)도 인식만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비밀 종교활동 참가 경험이 있는가?'를 묻자, 137명(1.2%)이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31명은 2001년 이후 탈북자들로, 2001년 이후 종교활동이 비밀리에 일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책을 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472명(4.2%)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 중 2000년 이후 탈북민이 463명으로, 북한 성경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활동시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 가장 낮은 처벌인 '노동단련형'이라는 응답자는 전체 10,689명 중 298명(2.8%)이었다. 한국의 교도소 격인 '교화소'가 1,217명(11.4%), 가장 높은 처벌인 '정치범수용소'가 5,539명(51.8%)이었다.

탈북민들의 '현재 종교'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총 11,030명 중 4,872명(44.2%)이 기독교라고 응답했고, 불교가 1,180명(10.7%), 천주교가 1,121명(10.2%)로 뒤를 이었다.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는 3,177명(28.8%)이었다.

종교활동 시작 시기는 '국내 조사시설'이 2,791명(33.9%), 'C국'이 2,518명(30.6%), '하나원'이 2,435명(29.5%), 'C국 외 제3국'이 344명(4.2%), '북한'이 154명(1.9%)을 각각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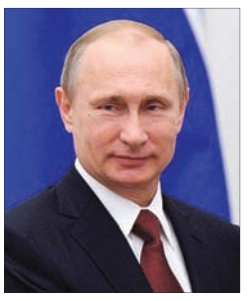
백서가 집계한 북한 종교박해 사건은 총 1,247건이며, 이 중 종교활동에 의한 경우가 645건(51.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종교물품 소지 295건(23.7%), 종교전파 133건(10.7%), 종교인 접촉 62건(5.0%) 순이었다.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한 비율이 22.6% 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 17.9%, 미상 59.5%로 생존 비율이 낮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80%를 넘었다.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 처벌 수준의 경우 '구금'이 739건(59.3%), '이동 제한' 133건(10.7%), '사망' 113건(9.1%), '실종' 82건(6.6%), '상해' 44건(3.5%), '추방 및 강제이송' 43건(3.4%) 등이었다.

이대웅 기자

푸틴, 트럼프 당선자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한 축하 전문



블라디미르 푸틴
ⓒ위키피디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당선자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의 상호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양국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문제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푸틴은 러시아와 미국 정부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CA 주민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11월 8일 주민발의안 64 투표에서…찬성 56% 반대44%로 통과돼

콜로라도, 알래스카, 오레곤, 워싱턴주 등에 이어 캘리포니아주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그동안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마리화나는 11월 8일 주민발의안 64가 찬성 56%, 반대 44%로 통과되면서 이제 담배 형태뿐 아니라 쿠키, 브라우니, 음료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주민발의안 64는 21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운반, 구매,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섯 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도 있다.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면 주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비자들에겐 1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마리화나가 음주나 흡연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설득해 왔다.

반대자들은 마리화나가 청소년들에 의해 오용될 수 있으며 운전자들에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해 왔다.

최근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주에서는 마리화나에 취한 청소년이 호텔 발코니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남편이 환각 상태에서 아내를 총으로 쏘거나 과다사용자들이 사망하는 등 적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김준형 기자

자카르타 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무슬림들. ⓒ보도화면 캡처

기독교인 주지사 물러나라

인도네시아 강경 무슬림 15만 명…자카르에서 대규모 시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무슬림 강경파가 주도하는 대규모 도심 시위가 심해지면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전날 밤 자카르타 무슬림 단체인 이슬람방어전선(FPI)이 주도하는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요 예배를 마친 무슬림 시위대 약 15만 명이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통령궁으로 가두행진했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했으나 일부 참가자들이 화염병과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물대포로 시위대의 해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를 과도하게 들이마신 시위 참가자 1명이 사망했고, 양측에서 총 1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 차량 2대가 불에 탔고, 자카르타 북부 지역에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편의점을 불태우기도 했다.

시위대는 화교 출신의 기독교인 바수키 차하야 주지사가 최근 대중 연설 과정에서 이슬람 경전인 꾸란 구절을 인용한 것을 문제삼아 퇴진을 요구했다.

무슬림이 아닌 이가 꾸란을 언급해 신성을 모독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그는 "꾸란이 무슬림이 비무슬림들에게 투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소셜미디어로 알려지자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은 개신교인인 그를 신성모독 혐의로 고소하고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차하야 주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어떤 사람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퇴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시위의 배후에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경제권을 장악한 소수 화교들이 정치권력까지 손에 쥐는 것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강혜진 기자

아시아 비비(맨 오른쪽). ⓒ英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파키스탄 기독 여성 '사형선고 철회' 청원

사형선고 받은 기독 여성 구하기 위해 54만 명 참여

54만 명 이상의 파키스탄 국민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자국의 크리스천 여성의 선고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초 연기된 상태다.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에 따르면, 청원서를 작성한 한 시민단체는 최근 파키스탄 교도소에서 사형집행을 앞둔 이 여성의 선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주미 파키스탄대사관에 전달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달 말에는 주미 파키스탄대사관 질라니(Jilani)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며 "이 여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한 파키스탄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고,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무슬림 예언자인 무함마드(Mohammad)에 대한 발언 한 마디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부당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이 여성은 사형에 처하게 된다.

5명의 딸을 둔 이 기독 여성 아시아 비비(Asia bibi·51)는 지난 2009년 6월 한 무슬림 동료와 논쟁을 벌인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비비는 "이웃 무슬림 여성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으셨는데, 무함마드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을 뿐, 이슬람 신앙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의 사형선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 사형 집행이 이뤄지면, 이 여성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처음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인권침해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미국법과정의센터는 이 여성에 대한 사형집행을 막기 위해 유럽법과정의센터(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같은 연맹기구를 동원하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은 이 여성은 7년째 수감 중이다.

파키스탄에서의 신성모독죄는 무고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 과정에서 흔히 실수가 발생한다.

ACLJ는 "아시아에서의 유일한 신성모독 죄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이 여성은 독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급진적인 무슬림 성직자들이 사형선고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ACLJ는 그러나 "이 사례는 파키스탄인들이 국내외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막진 못한다.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있고, 이 여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 파키스탄 대법원도 아직 항소심에 대한 재판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여성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도 이 여성을 위해 24시간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세계기독연대 키리 칸켄디(Kiri Kankhwendi)는 한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대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새로운 여행 문화의 선구자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선

여행의 품격~ 호텔이 결정합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숙박 특선!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이제 품격을 즐기세요"
"럭셔리의 극치 벨라지오 숙박, [라스베가스 헬기] 포함"

라스베가스 자유여행 벨라지오 2박/3박

3일 ▶11/24,25 $345
4일 ▶11/24 $456

1 라스베가스 최고호텔 '벨라지오 숙박'
2 라스베가스 스트립 '헬기투어 전격 포함 ($120불 상당)'
3 연중 최대 할인이 진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 프리미엄 아울렛, '무료셔틀 운행'
4 가족과 연인과 여유있게/자유롭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세요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레드락캐년/ 후버댐 옵션관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만 보시겠습니까? 진짜 레인보우 브릿지를 만나세요"

레인보우 브릿지

SPECIAL 벨라지오 GUARANTEE

"포토그래퍼와 함께가는 사진여행, [레인보우 유람선] 포함"

1 서부 최고의 비경 '레인보우 브릿지 유람선 포함 ($150 상당)'
2 레인보우 브릿지로의 가벼운 산책후 만나는 300피트 자연석조다리
3 특급 벨라지오 1박 , 파웰 리조트 1박

3일 ▶11/24,25 $345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이제 품격을 즐기세요"

★★★★ 4성 호텔 숙박

세도나(버디캐년)낭만기차 /미티어 크레이터

"4성급 호텔 숙박, 조/석식 포함"

1 세계 최대 운석분화구, 미티어 크레이터
2 세계에 단2대 남은 빈티지기차 타고 멋스럽게, '세도나 기차 포함($100 상당)'
3 블랙프라이데이 프리미엄 아울렛 방문
4 카우보이 쇼 & 디너

3일 ▶11/24,25 $345

"보기만 하시겠습니까?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이언 캐년 트레킹

SPECIAL 벨라지오 GUARANTEE

"대자연이 빚은 신비로운 자이언 캐년에서 [바비큐파티] 포함"

1 익숙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난이도별 트레킹
2 트레킹 전문가와 쉐프가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
3 특급 벨라지오 1박

3일 ▶11/24,25 $345

봉쥬르~ 퀘벡

$1,399 ▶ $1,249
4일 ▶11/24

시작부터 끝까지 클로이 인솔자가 동행 합니다.
캐나다 속의 유럽, 북미의 파리를 느껴보세요~

1 올해 나이아가라를 관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 별도의 휴가 없이 연휴 3박4일을 알차게 보내세요~
3 퀘벡과 몬트리올, 오타와까지 제대로 즐기는 캐나다 동부

치첸이사 / 캔쿤

$1,399
4일 ▶11/24

꿈의 휴양지, 카리브해의 낙원 캔쿤으로의 여행~

1 치첸이사 관광, 한국인 가이드 동행 특선!
2 최고급 리조트인 문팔레스 리조트 ALL- INCLUSIVE 서비스
3 추수감사절 '골프 무제한'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치첸이사 한국인 가이드 동행!

푸른투어는 미국 서부, 동부, 캐나다 모든 여행을 직접 진행합니다.

1등 아메리카 대륙

미서부

매주 화요일 특급 벨라지오 호텔 숙박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매주 화 -7일 매주 화 / 토 3대 캐년 + 앤텔로프 캐년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3일 $299
▶ 매주 화 / 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 목 / 금 /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6일 $599
▶ 매주 화 / 토

세도나 3일

$149 ▶매주 월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샤토프롱트낙 숙박

퀘벡 2박3일 ▶매주 토 $429 +항공
▶세계문화유산 리도홀 / 성요셉 성당 / 노틀담 드캅 성당 / 몽모렌시 폭포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명문대 탐방 5박 6일 ▶화,토 $1,09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명문대 탐방 7박 8일 ▶수 $1,16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실속 미동부 5일 ▶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미동부/천섬 6일 ▶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미동부/보스턴 7일 ▶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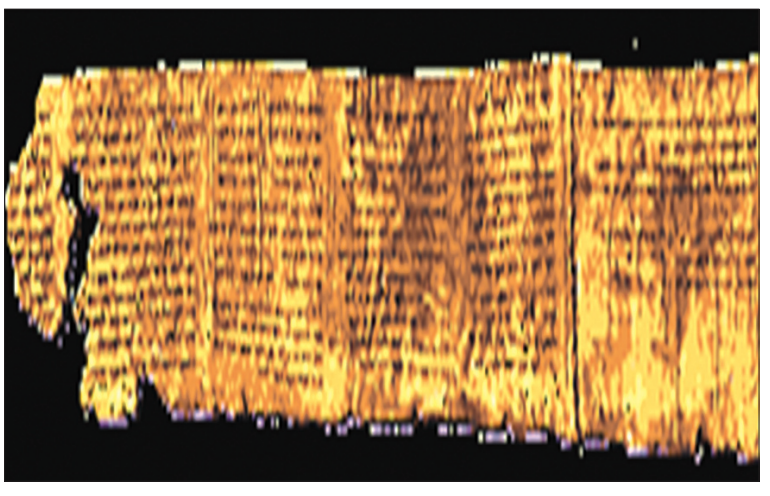
미동부/캐나다 8일 ▶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12)

쿰란…광야의 외치는 자들의 소리(上)



쿰란 제4동굴과 발굴된 두루마리 사본.

◈쿰란으로 가는 길

엔게디에서 다윗의 시편과 만나고, 에스겔의 비전을 접한 뒤, 다윗이 숨어있었다는 동굴은 아쉽지만 더 들여다보지 못하고 폭포만 본 후 서둘러 쿰란으로 향한다.

엔게디에서 36분 23.8마일(38.4km) 90번 도로를 타고 사해 서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황무한 회색 바위틈에 빼꼼히 동굴이 보이는 곳에 도착한다. 이곳이 쿰란 국립공원이다.

이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90번 도로를 지나 1번 국도를 만나 유대광야를 가로 질러 서쪽으로 30.57마일(49.2km) 약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된다. 해저 지점에서 해발 지점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리고는 이곳에서 불과 8마일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사해 동편 느보산도 바라볼 수 있다. 갈릴리 호수로 가려면 90번 도로를 타고 요단강 서안으로 계속 85.7마일(138km)올라가면 된다. 차로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쿰란의 뜻

쿰란의 뜻은 "회색 폐허의 지점"이라는 명칭이다. 사해와 유대광야 사이, 유대광야의 동쪽 끝 부분에 있는 이곳은 광야 특유의 회색빛과 메마름, 그리고 무더움이 있는 곳이다. 앞에는 사해가 있어 끈적끈적함까지 갖추고 있으니 그야말로 회색 어두운 빛의 아무 볼 것이 없는 폐허같은 곳이다.

키르벳 쿰란 또는 간단히 쿰란(Qumran, Khirbet Qumran)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사해 서쪽 둑에서 북서쪽으로 들어간 건조한 평원이며, 칼리아(Kalia) 키부츠 옆에 있다. 아마 이곳은 요한 힐카누스 하에 있던 시절인 134~104 BC에 세워졌을 것이며, 많은 다른 통치(70년 티투스 황제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해서)를 겪으면서 유지되어 왔다.

기원전 130년경 사해 북서쪽 기슭, 사람이 살 수 없는 "회색 폐허의 지점"이라는 곳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 및 요단 동편으로부터 몰려왔다. 요한 힐카누스의 유대인 종교문화 파괴정책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에 따라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에셋네파도, 열심당원들도 있었다. 이 무리 중 바리새파에 비해 더욱 급진적이며 금욕주의자였던 에셋네파가 다수를 이루었다.

구약에 염성 (수15:61~62)으로 기록 되어진 곳이 혹 이곳이지 않은가 한다.

◈ 쿰란 사람들

약 150명으로 구성된 남자들만의 공동체였던 이곳에서는 매일 구약성경이 필사되거나 묵상되어 지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여리고로부터 기본적인 음식을 공급받았으며 나머지 생활은 자급자족하는 편이었다.

유대인 제1차 반란이 있던 기원후 68년까지 거의 200여 년간을 거주하면서 사40:3에 나오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금욕주의 생활을 하였던 쿰란 공동체는 로마의 침공으로 파괴되고 만다.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유대광야와 가깝고, 요단강도 가까워서 혹시 세례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본다. 세례요한도 광야의 외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지 않았던가!! 지금이나 그때나 황폐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곳에서 그들이 바라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사회나 지금이나 물질과 권세가 최우선 시 되는 세상에서 원시 수도원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가정도 없이 무엇으로 만족과 행복을 느꼈을까? 생각컨대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기쁨을 누렸으리라 본다.

비록 그들의 삶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어도 광야의 외치는 자로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웠으리라 본다.

로마군의 습격으로 200여 년 역사는 깨어지고 사람들은 어디론가 흩어졌다. 그로부터 1879년의 세월이 흐른 후 2000년의 숨겨진 신비가 드러나게 되었다.

◈쿰란 발굴사

쿰란(사해) 사본 두루마리들은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되었고, 쿰란 주거지에서 적게는 125m(제4동굴)에서부터 0.6마일(1km, 제1동굴)까지 떨어져 있다.

사람이 살던 주거지에서 발견된 문서는 없다. 염소와 양을 치는 베두인 모함메드 아흐메드 엘-하메드(별칭 에드-디브, "늑대")가 1947년 초에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양치기가 잃은 동물을 찾기 위하여 돌멩이를 동굴로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오래된 항아리에 들어있는, 면에 싸여 있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존 트레버 박사는 무함메드 에드-디브라는 사람에 대해 여러 사람과 인터뷰를 했지만 모두 기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포함한 여러 변형된 이야기들이었다고 한다.

이 두루마리들은 골동품 상인인 이브라힘 이즈하(Ibrahim 'Ijha)가 베들레헴에 가지고 들어왔으며, 시나고그에서 훔쳤다는 의혹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그후 이 문서들은 칸도라고 불린, 칼릴 에스칸더 샤힌(Khalil Es-kander Shahin, "Kando")이라는 도굴꾼이자 골동품 상인에게 넘어갔다.

처음 베두인들이 이 문서를 발견했을 때는 세 개의 두루마리를 꺼냈는데, 칸도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나중에 동굴에 다시 들어가 더 많은 문서들을 꺼내오게 되었다. 또 어떤 이들은 칸도가 적어도 네 개의 두루마리를 불법적으로 발굴했다고 하기도 한다.

베두인에게서 건네받은 문서들은 제 삼자에게 흥정을 통해 넘어갔다. 그 중 하나는 시리아 정교회의 일원인 게오르게 이샤야(George Isha'ya)였고, 그는 곧 이 문서의 정체를 문의하기 위해 성마가 수도원에 접촉했다.

이러한 발굴 소식은 메트로폴리스 주교 아타나시우스 예수에 사무엘(Athanasius Yeshue Samuel)-또는 마르 사무엘(Mar Samuel)이라고 더 잘 알려짐-에게 전해졌다.

문서를 조사하고 나서 오래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르 사무엘은 이를 사는 데 관심을 보이게 된다. 4개의 두루마리들을 곧 사게 되며 이들은 현재 유명한 이사야 스크롤(1QIsa)과, 공동체 규칙, 하박국 페샤르(하박국 주석)과 창세 묵시록이다. 또 다른 두루마리들이 고문서 시장에 나돌았으며,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이면서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엘레이저 수케닉(Eleazer Sukenik) 교수가 3개의 두루말이를 얻게 되었다.

이들은 전쟁 두루마리, 추수감사 찬송과 이사야 문서의 단편들이었다.

1947년 말까지, 수케닉은 마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사려고 시도했다. 정말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고, 대신 미국 동방 연구소(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ASOR)의 존 트레버 박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트레버 박사는 이 문서의 구절들을 당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 내쉬 파피루스와 비교했고 이 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트레버 박사는 아마추어 사진가로도 열정이 있었다. 그는 마르 사무엘을 1948년 2월 21일에 만나 두루마리의 사진을 찍는다. 나중에 어떤 사진은 사본 자체보다 보관 상태가 더 좋기도 했다. 사본들의 면 커버를 제거하고 나서 사그러졌기 때문이다.

그해 3월에 1948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 안전을 위해 문서들을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곧 베이루트로 옮겨졌다.

1948년 9월 초, 마르 사무엘은, ASOR의 새 소장인 오비드 셀러스에게 새롭게 얻은 사본들의 단편을 가지고 간다. 그 해 말, 학자들은 사본이 발견된 동굴의 위치를 알아내게 된다. 당국에서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셀러스는 시리아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굴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하지만, 셀러스가 주겠다고 한 돈보다 더 비싼 돈을 요구했다. 제1동굴은 결국 1949년 1월 28년에 국제 연합의 조사관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사해 사본을 팔겠다는 광고가 1954년 7월 1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리게 된다.

7월 1일, 몇 번의 섬세한 협상을 통해 메트로폴리탄과 다른 두 명이 가지고 있던 사본들은 미국 뉴욕의 월도르프-아스토리아 호텔로 옮겨지고, 250,000 달러에 팔린다.

마르 사무엘은 그 돈의 아주 일부분만 받게 되고, 서류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가 대부분의 돈을 세금으로 가져 가게 된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나들이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2월 14일~25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전도용품 세일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향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보험 가입 &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수소수의 활성 산소 제거 과정
수소 활성 산소 ▸ 수소 활성 산소 ▸ H2O
체내에 물과 함께 흡수된 수소가 분리되어
몸에 나쁜 활성산소와 결합이 되고
무해한 물로 바뀌어 소변이나 땀등으로 배출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시금치 90다발 바나나 1512개 사과 1032개 당근 76개 큰호박 7개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높은 용존 수소량 · 가정용 수소수기 · 강력한 환원능력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키친아트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GSPH 100 $2,990+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Pure & Good Hydrogen Generator with Water Purifier
구입 문의 Tel. 213)434-1170 PRO-Z USA, Inc. 621 S.Virgil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5

• 김병태 칼럼

'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김 병 태 목사
성천교회

최근 가는 곳마다 '최순실 게이트' 이야기로 세상이 시끄럽다. 신문을 들어도, 인터넷을 켜도, 텔레비전 뉴스를 할 때마다. 이제는 짜증이 나고 듣기 싫을 정도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세상이다. 편법을 하고 불법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현혹되기 십상이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가슴이 아프다. 권력누수 현상이 이다지도 깊은 걸까? 돈에 대한 탐심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아온 걸까?

세상 모든 조직에는 직책이 있고, 그에 따른 권력의 힘이 뒤따른다. 정당하게 사용된 권력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근원이다. 그런데 권력이 남용되어지는 게 문제다. 다른 모든 조직이 그래왔지만, 우리 정치사는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비리가 늘 불거져 왔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믿었다. 여성 대통령에다, 책임져야 할 자녀도 없으니.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권력비리는 어느 정도 안심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숨겨져 있었다. 최태민에 이어 최순실 부녀(父女)라는 복병이. 하루를 지날 때마다 드러나는 그들의 비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깜짝 깜짝 놀라게 만든다. 이래도 되는 건지 의아할 정도로.

권력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은 세상 지도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경계하셨지만, 권력의 힘을 빌어 마구 휘두르는 '또 다른 권력'이 사회를 이렇게까지 병들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족이 아니면, 주변 측근들이 휘두르는 권력 비리들! 그래서 이런 저런 주장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김영란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윗사람들과 권력 상층부는 빠져나가는 김영란법이 아닌, 정직한 김영란법이. 권력의 힘이 또 다른 사회 비리를 양산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위해.

권력의 횡포를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본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몰고 왔을 때 하늘의 천군천사들을 동원해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면 원수들을 그 자리에 꼬꾸라뜨릴 수 있는데 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히셔서 심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셨을까? 베드로처럼 칼을 꺼내서 저항이라도 하시지.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기하셨던 게다.

권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 사도 바울의 외침이 생각난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참 사도인 것을 변호하고 논증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묻는다.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고전 9:4~7)'

누구나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당연이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릴 수 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난한다. 바보 멍청이라고. 바울도 사도로서 수고 하고 애썼으니 얼마든지 사도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한 게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마음과 정신만 가진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너무 아쉬운 일이다.

고래로부터 그래왔지만, 돈은 사람들의 구미를 끌어당기는 것 같다.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돈의 횡포성이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함께 어우러질 때는 더구나 그렇다.

돈에 대한 유혹을 누가 뿌리칠 수 있을까? 돈에 대한 탐심을 누가 거절할 용기가 있을까? 한두 번 하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개념조차 사라져 버린다. 아예 양심의 마비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성경의 지적처럼 화인 맞은 양심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권력과 돈의 횡포를 실감나게 들여다본다.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쓰고 나오는 최순실을 보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비슷한 얼굴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 저 정도로 해 먹을 수는 없지만, 권력에 빌붙으려는 유혹은 다분하다. 일이 있을 때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사건이 벌어질 때면 사돈에 팔촌까지라도 공권력을 동원하려 하지 않는가?

돈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정직과 투명이라는 단어를 보자기에 감싸 두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적당하게 탈세도 하고, 남들이 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선에서 정직하지 못한 돈을 호주머니로 챙겨 넣지 않는가? 그래서 크고 작은 리베이트도 나오지 않는가?

야권에서는 쌍심지를 켜고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은 깨끗할까? 그들을 털면 먼지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비슷한 수준급이라 여겨진다. 단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숨기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는데 혈안되어 있을 뿐이다. 정치적인 유익을 챙기기 위해. 아니면 바른 세상, 정의라는 명목으로 말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게다. 나 자신이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 정치꾼들이. 한국교회도. 목사인 나도.

어디 그뿐이겠는가? 느헤미야처럼 바로 나의 죄이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안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한다. 다윗이 시편 6편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울어 침대를 띄우고 침상을 적시던 것처럼.

더구나 최순실의 비리를 뒤지면서 기독교 용어들도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얼굴이 뜨겁다. '목사, 교회, 대한구국선교단' 등. 최순실이 20년 동안 강남에 있는 세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신앙의 허실을 보게 된다.

이쯤에서 우리는 교회의 신앙훈련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고, 기복적인 우리의 신앙과 이원론적인 신앙생활도 성찰해야 한다.

힘들 때, 어려울 때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젊은 시절 어머니의 충격적인 죽음, 뒤이어 아버지의 뼈아픈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불행의 씨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세상과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 깊은 신뢰를 주었던 최태민과 최순실 부녀, 그들과 맺었던 40년에 가까운 인연이 결국 권력과 돈의 횡포에 휘말리게 만든 게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 이효준 칼럼

부정부패와 비리

이 효 준 장로
덕천교회

요즘 나라 전체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건으로 온통 시끄럽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일반 회사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부정부패와 비리가 자행되고 있음은, 첫째가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철저한 소통과 상호 신뢰 가운데 모든 회무를 처리하지 않고, 사장이나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소신 없이 눈치 보기에 급급한 땜질식 처방을 하거나 안일무사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부하 직원이 건의 하거나 바르게 진언하면, 곧바로 묵살해 버리고 부하직원을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내거나 일하기를 꺼려한다. 반면 자기 앞에서 아부를 떨고, 상사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예스로 일관하며, 상사의 비리를 묻어두거나 오히려 상사를 도와주며 공유하기도 한다.

부하 직원이 올바르게 건의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하 직원을 우선 진급을 시켜줘야 하는데, '무' 자르듯 잘라 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충신은 크지를 못한다. 자신의 비위나 맞추고 물질이나 금전으로 상납하는 부하 직원들만 출세한다.

그런 사람들만 계속 크고 있으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사회는 부정부패와 비리의 무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암적 존재인 부정부패와 비리의 핵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와 비리의 고리 속에 얽매어 있다. 참신한 인재를 길러내기보다 내 팽개치는 사회의 악에는 미래가 그저 암울할 뿐이다.

성경에서도 부정과부패 비리로 인해 참혹한 비극을 초래했던 사건 중,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온다.

부인인 이세벨의 악한 우상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합 왕은 탐심에 이끌려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나봇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므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 나봇이 제안을 거절하자 아합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마침 이세벨의 간계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다.

이세벨은 페니카사의 해안도시 티레와 시로 (지금의 레바논 사이다) 의 군주였던 제사장 겸 왕인 에드바알의 딸이었고 이세벨은 아합과 혼인 한 뒤 아합을 설득하여 티레의 자연신 바알 메가트를 숭배하게 했던 것이다. 강한 욕구자 이세벨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예언자들 대부분이 죽임당했던 것이다. 그녀는 결국 엘리야의 예언처럼 창문 밖으로 떨어져 개에게 먹히고 말았다.

이세벨은 남편인 아합 왕이 탐내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신앙의 이름을 빙자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모세의 율법을 자신의 편의 수단으로 삼아 나봇을 처형하게 된다. 나봇의 죄명은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명목으로 그를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했던 것이다.

이세벨은 악한 종교의 영향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참혹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본래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근본의 취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도모를 위한 이기적인 탐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탐심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 탐심에는 부정부패, 비리가 그림자처럼 붙어다닌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탐심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에 달했다.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부정부패, 비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 보인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을 이제부터 이루어나가야 하겠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없는 밝은 빛의 교회로 변했으면 좋겠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성도들, 모두 함께 즐겨 웃으며 세상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 없이 스스로로 주님 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행동과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음의 종소리를 울려 주어야 할 것이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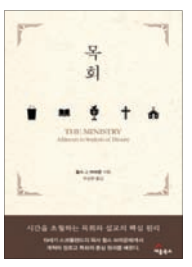
특강 종교개혁사
황의상 | 흑곰북스 | 400쪽

이 책은 교과서에서 이름만 알고 있었던 사건들이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로 연결지어, 세계사와 함께 교회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안겨준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실제 회의록을 원천 데이터로 삼아 분석하여, 지금까지 일반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흥미로운 주제를 여럿 끄집어냈다. 무엇보다도 총회의 복잡한 토론과 논쟁을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엮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 규장 | 288쪽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복음의 증인. 故유석경 전도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본심. 유 전도사는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치료대신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쪽을 선택한 후,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전도에 힘썼다. 그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죽은 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목회
찰스 J. 브라운 | 세움북스 | 192쪽



이 책의 저자 찰스 J. 브라운은 19세기 스코틀랜드 애든버러에서 목회했던 목회자이다. '신학생에게 한 연설들'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찰스 브라운이 약 10년 동안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기에 했던 강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탁월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던 찰스 브라운의 유산은 그렇게 150년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와 공명하고 있다.

조지 래드 하나님 나라
조지 래드 | 크리스천다이제스트 | 416쪽

조지 엘던 래드(Gorge Eldon Ladd, 1911~1982)는 F.F. 브루스, 윌리엄 바클레이 등과 더불어 20세기의 위대한 신약학자였다. 특히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많은 저서를 낸 신약하계의 거성이었다. 그는 갈등하는 견해들의 균형잡힌 해석과 깊은 성경적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래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에 "하나님의 통치" 개념에서 열쇠를 찾고 있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한국 개신교의 역사 어떻게 시작되었나

한국 개신교 역사 첫 30년 동안 있었던 첫 사건과 첫 인물들에 대한 탐색

얼마 전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새물결플러스)를 출간한 옥성득 교수가 또 새 책을 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시기로부터 서울에서 정착하는 과정, 서북지방과 전국으로 확산하기까지의 과정을 45가지 '첫 사건'속에 촘촘하게 담았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여 년간 한국 기독교사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가운데 새롭게 발굴하거나 정리한 내용들 중 개신교 첫 45가지 사건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고 나름의 기준에 의해 기존의 자료들도 정리한 결과물이지만 단순한 자료집이 아닌 대중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쓴 대중 역사자료집 성격을 갖는다.

저자는 거의 30여 년간 여러 고문서실과 도서관을 누비면서 자료를 수집했고 한국 기독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여러 자료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이 책은 그런 작업의 흐름 속에 있는 대중서 작업의 한 본보기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첫 사건들'은 인물, 문헌, 장소, 교회당, 학교 등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다.

저자가 새롭게 발굴한 대표적인 문헌 중 한글로 인쇄된 첫 개신교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예수셩교요리문답〉이라는 교리문답서가 있다. 그 외에도 첫 세례를 받은 이영찬, 배봉준, 서상윤, 김창송 등에 대한 자료도 발굴, 소개하고 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나 매클레이보다 서울을 앞서 방문한 선교사로 다우스웨이트에 관한 자료도 실려 있다. '첫 한국어 교본', '첫 전도인', '첫 선교편지', '첫 한글 주기도문(이수정 역)', '인쇄된 첫 설교문', '첫 악보 찬송가', '첫 자급 토착교회', '첫 비교종교 신소설',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도 흥미롭다.

첫 사건으로 본 초대 한국교회사
옥성득
짓다 | 408쪽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루고, 2부에서는 초기 선교사역이 시작된 서울에서의 사건들을 다룬다. 3부는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서북 지방에서 일어났던 첫 사건들과 첫 인물들을 언급하고, 4부는 다시 서울로 와서 전국으로 교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사건들으에 주목한다. 초기 한국 개신교가 설립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연대 흐름 순으로 추적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정확한 사료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보다 '공정한' 최초의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자체가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받았던 최초의 문헌들에 가졌던 감흥을 독자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인문 고전 읽기]

근대정치사의 고전 중 최대의 '문제작'

〈군주론〉은 근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적 저작

이 책의 저자는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다. 〈군주론〉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적 저작으로 근대 정치사상에 획기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1512년 메디치 가의 복귀로 피렌체 공화국에 정변이 일어나자, 저자는 추방되어 피렌체 교외의 한 산장에 은거하게 되었다.

책은 이러한 은퇴 생활의 소산이다. 이 책은 1513년 7월 경 집필되기 시작하여, 그 해 12월 이미 대체로 완성되었다.

그는 정치적 부패가 극한에 달하고 있던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을 전제로 문제를 제기했고, 새로운 국가 건설에 의한 이탈리아의 갱신을 생각한 것이다.

또 그는 정치적 상황의 원인을 군주들의 죄로 돌리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새로운 군주에게 기대하였다. 이 책의 주된 초점은 이러한 군주에 대한 호소에 있다.

이 책은 전편 26장으로 되어 있다. 저자는 책에서 군주국, 특히 신흥 군주국의 통치 방법(1~11장)을 다룬다.

이어 군주와 군(軍) 문제(12~14장), 군주가 좇아야 할 행위의 준칙(15~25장), 그리고 군주에의 호소(26장)를 다룬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전통적인 학술논문 형식을 빌려 그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책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잘 정리돼 있으며, 저자는 이탈리아 산문의 거장답게 아름다운 스타일로 각

군주론
마키아벨리
돋을새김 | 312쪽

장마다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의 사상 전개 방식에는 일종의 리드미컬한 운동이 보인다. 즉 저자의 발상법에는 새로운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인 사상-새로운 사상-전통적인 사상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8장에서 저자는 군주가 '반인반수'가 될 수 있어, 인간과 짐승을 부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군주는 '여우와 사자'의 두 가지 역할을 행해야 한다. 따라서 군주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며 불리한가를 추호의 도덕적 고려도 하지 않고 오직 전혀 정치의 합리성에서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한 마디로 말해 정치적 기술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약점을 들추어 폭로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기술을 논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소위 마키아벨리즘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군주에게 호소하려 할 당시 이탈리아의 현상은 그의 기대를 배반할 뿐이었으므로, 그는 논리의 세계에서 별안간 상상력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했다. 저자는 마지막 장(26장)에서 종교적 정열을 쏟으며, 이탈리아를 구제할 새로운 군주의 출현을 대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책의 전편을 통해 서술해 온 그의 사상과의 모순에 대하여는 침묵하면서 오직 애국의 열정을 기울여 군주를 향한 호소로 끝을 맺고 있다.

근대정치사의 고전적 저작 중에서 이 책만큼 논란을 불러일으킨 책은 없다. 이 책에 나타난 저자의 사상뿐 아니라, 그가 집필하게 된 동기를 둘러싸고 숱한 해석이 행해졌다. 저자는 '악마'로 매도되기도 하고, 혹은 '애국자'라고 칭송을 받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저자의 마키아벨리즘이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에서 생긴 '필요악'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그것은 일종의 '독물요법'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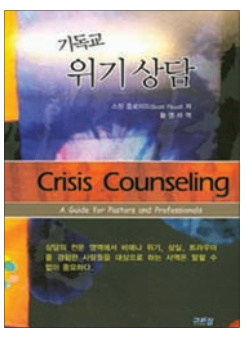
저자의 '마키아벨리즘'은 본질적으로 이탈리아적인 것이라 해도, 중세적 질서의 해체 속에 일어나고 있던 새로운 '세속적' 국가의 생활법칙은 그 극한 상태에서 예견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날에도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북스리뷰]

돌봄목회 위한 기독교 위기 상담

이론과 현장의 실제적 경험을 함께



기독교 위기 상담
스캇 플로이드
그리심 | 335쪽

◈돌봄목회

'돌봄목회'라는 제목의 책들이 보인다. '돌봄 목회'에 관련된 책 모두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읽어 본 바에 의하면 '돌봄목회'는 교회의 외적 확장보다는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목회를 의미하는 듯 하다. 목회 철학적 개념에서 '돌봄목회'는 매우 매력 있어 보인다.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돌봄 목회에 대해 필자는 어느 정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상담과 치유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독이나 노숙자 프로그램, 가정폭력을 피해 나온 쉼터 등을 운영하는 교회는 보았지만, 일반적 목회에서 돌봄목회를 정착시킨 교회는 적어도 필자가 경험하고 읽은 책을 통해서는 없는 것 같다. 여러 권의 책을 읽어 보았지만, 현실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럼에도 현실은

필자는 교회를 개척한 후 본의 아니게 '돌봄목회'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돌봄목회'를 의도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으며, '돌봄목회'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돌봄목회'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 개척을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오질 않고 아픈 사람들만 온 것이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심지어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아픈 자들을 만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필자가 이 사역을 계속해 오면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돌봄목회'는 아닐지언정, '돌봄사역'을 빨리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먼저 전문성 길러야

교회가 성도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돌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실제 상담학계에서는 일반 심리상담학을 배제하더라도 기독교 안에서 '성경적 상담학', '기독교 상담학', '목회 상담학'으로 나누어져 있어 부분적으로는 서로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입장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매우 성경에 충실하고, 심리학적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으면서 목회 현장을 잘 담아내고 기독교적 위기상담의 개념과 사역의 전문성을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은 '목회 현장에서 부딪치는 위기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트라우마 등을 경험한 사람들, 일상 중에 겪게 되는 심각한 스트레스들의 과정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 중에 있는 상실과 애도, 비애의 성격이나 증상, 그리고 그 과정 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이 책에 제목을 붙인다면, '돌봄목회를 위한 위기상담'으로 붙이고 싶다. 즉 단순한 돌봄목회의 철학이나 이론서가 아닌 이론과 현장의 실제적 경험이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돌봄목회의 좋은 실제 예를 볼 수 있었고, 큰 틀의 방향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 책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스리뷰]

성경의 더 깊고 넓은 세계로

이 책은 구약을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의문점 38개(+신약 2개)를 다루고 설명하는 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디자인과 크기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와 심플한 디자인이 무겁고 큰 신학서적과는 다른 느낌을 보여준다.

책 속 디자인 역시 인상적이다. 하나의 장이 5~6쪽 정도의 가벼운 양에, 주제에 맞는 사진들이 책 곳곳에 있다.

내용 면에서도 역시 흥미롭다. 성경을 접할 때 한 번쯤은 궁금했지만, 성경이라는 다소 제한된 텍스트와 함께 구약과 현재 시대의 문화 격차로 인해 알기 쉽지 않고, 누구도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책이 다루는 의문사항들은 당시 풍습('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은 어떠했나요? 고대 이스라엘

김구원 교수의 구약 꿀팁
김구원
홍성사 | 208쪽

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나요?'), 당시 문화와 상황을 이해해야 해결되는 의문점들('파라오는 왜 급히 요셉을 불러 꿈 해석을 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나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정말 야만적인 법이었을까요?') 등 다양하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의 텍스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성경에 질문을 던지고 파헤쳐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야기(narrative)는 그 특성상 문화와 환경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보다 온전한 이해를 위해 그 이야기를 둘러싼 많은 요소들도 고려돼야 한다.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몸담은 이 이야기의 온전한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이다.

박예찬 기자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November 10, 2016 Vol. 76

Donald Trump was elect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November 8, 2016. He is pictured in this photo at a rally in Phoenix, AZ in June 2016. (Photos courtesy of Gage Skidmore/CC)

Trump Elected President of U.S.

Evangelicals respond to election results, call for unity

BY RACHAEL LEE

Donald Trump has been elect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nning 279 electoral votes on Tuesday. Hillary Clinton won 228 electoral votes.

According to exit poll results, a large majority — 81 percent — of evangelicals voted for Trump. And evangelicals had much to say on the night of and the morning after the elections. Some weighed in on what it was that made Trump appealing to evangelicals.

"It isn't that folks liked him more than previous candidates," Tony Perkins, the presiden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said on Twitter on Tuesday night. "They were mobilized by what's at stake & the clear contrast w/Hillary on life."

The factors that some evangelicals cited as reasons for their support for Trump may be among the implications for Trump's newly won election. For instance, Trump has defended religious freedom during his campaign. Trump said he would nominate conservative Supreme Court Justices. He said he would repeal the Johnson Amendment. He has expressed he is pro-life. Trump has been friendly towards Israel and has said in October that he would move the U.S. embassy from its current post in Tel Aviv to Jerusalem.

"While I have often registered doubts about what the term 'evangelical' means in polls, the strength of the old Religious Right has clearly not been exhausted," commented Thomas S. Kidd, professor at Baylor University, on an article in The Gospel Coalition.

"Part of the reason for this enduring strength is that conservative Christians were scared and scarred by threats to religious liberty of the past eight years, ranging from pressure against Christian colleges and Christian groups on campuses, to threats of punishments for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at do not toe the line on the HHS abortifacient mandate and gay marriage," Kidd continued. "Even for Never Trumpers, there has always been a notion that if somehow he got elected, he could actually turn out to be helpful on matters such as the right to life, and religious liberty, if he follows through on his promise to appoint Scalia-like judges."

However, other evangelicals cited Trump's unpredictability and the numerous times in which he changed his position on issues as among their reasons for opposition toward Trump. Those who opposed Trump also pointed to doubts about his character and morality -- due to his brash comments about women and people of other religious and ethnic groups -- which do not align with evangelical values.

Still, Trump supporting or not, there was a widespread effort to remain hopeful among most evangelicals who voiced their opinions on the elections. Many called for unity and cooperation.

"This election has been long, it's been tough, and it's been divisive. It's time to put that behind us," said Franklin Graham on Facebook. "Now is the time to come together in unity and work together."

"This isn't the time to point fingers and say 'I told you so,' or to assign blame. We need each other more than ever, and the lines that divided us over these last few months cannot be allowed to grow deeper," Ed Stetzer, executive director of LifeWay Research, wrote in Christianity Today. "It is time to heal, and remember that we are called to forgive even the deepest slights. No matter what side of the aisle we were on...we all wanted something better for our country these past 18 months. But we seek a different and better place altogether, and we stand united in that."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Envisions' Future of Asian American Church

BY RACHAEL LEE

Asian American leaders and members of various contexts gathered once again in Southern California for the third annual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hosted by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This year, the conference focused on the theme of envisioning the future of the Asian American church.

Among the topics discussed during the conference, which took place from 9 AM to 5 PM on Saturday, was the way that Asian Americans could serve to be witnesses for the gospel in this generation. Dr. Peter Cha, professor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who spoke during the morning and evening plenary sessions of the conference, emphasized the need to "develop our authentic witness" in the modern day, as non-Christians express increasingly disillusioned sentiments toward the Christian community.

One of those ways to develop authentic witness is to express the Asian American Christian voice, Cha said. Despite the diverse population of Christians in the U.S., Cha noted that there still exists a tendency for some to think of Christianity as 'white man's religion,' and to think of 'white people' when thinking of the church in America.

"I think it will be our homework to figure out, what voice do we bring to the table?" said Cha. "I hope younger generation pastors will collaborate to form that voice."

Cha also mentioned the potential role that Asian Americans have in racial reconcili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L.A. Riots, Cha said that many Korean Americans responded and collaborated with members of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Today, Asian Americans still can serve to be a bridge among the different ethnic groups, he said.

"This racial distrust will linger," Cha said, encouraging those at the conference to focus on the gospel in the process of racial reconciliation. "The gospel is a more profound way than tolerance to racial reconciliation."

Cha also alluded to the idea that though some Asian Americans may have a passion to be more involved in the greater community, Asian American churches may not be giving enough room for ministers and members to be active in those arenas. Cha said that among 18,000 attendees to the Urbana Conference in 2015, about 6,000 of them were Asian Americans, which showed "a great deal of interest and passion in our community to make an impact with the gospel."

"Are local churches presenting the opportunities for them to do so?" he added.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say that all the gifts that he gave us — including our Asian American identity — we did not bury it in the ground, but stewarded it faithfully for his glory and kingdom," Cha said.

Meanwhile, the conference also featured three sessions of seminars on about a dozen topics on specific ministries, including church planting, college ministry, children's ministry, global missions, worship, organizing special events, conflict resolution across generations, family ministry, and multi-ethnic church. Seventeen Asian American leaders in those respective areas were featured as speakers.

The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is set to take place for the fourth time next year on November 4.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Begins Journey as Multisite Church

BY RACHAEL LEE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five years after its independence from its mother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has begun its journey as a multisite church as it launched its second campus in Placentia on October 30. Some 240 people attended the first official service at the Placentia site at Valencia High School.

"If you've ever had the unforgettable experience of holding a newborn baby in your arms ... you just wish and hope for the best for the newborn child," Harold Kim, the lead pastor of Christ Central, said during the service which marked both the fifth anniversary of Christ Central and the launch of the multisite.

"That's how I have been feeling along with the leaders as we have relaunched and rebranded our service in Artesia, and have our first official service at Placentia," said Kim.

In a sermon titled 'Happy Birthday, Christ Central,' Kim focused on what it means to be a church, and who a church is for, as he spoke from 1 Thessalonians 1:4-5.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people called by God and changed by God, through the gospel of Jesus Christ," said Kim.

In particular, Kim shared four commitments that Christ Central has as a church, as he emphasized that the church is "not just for us [Christians]," but also "for our friends": communicating the gospel clearly and truthfully; connecting everything "to the centrality of Jesus Christ"; existing for the common good; and practicing real community.

"Christ Central will never claim to be better than any other ... church down the street," he said. "We are far from perfect, but we are here. We are far from perfect, but you are here. And there are a lot of friends who need to be here with you."

Kim will be preaching at both sites. The Artesia campus has recently changed its service times to 11:30 AM and 12:45 PM, while the Placentia campus will be holding services at 10 AM.

The Placentia campus offers nursery and children's ministry at the same time (10 AM), and youth group will launch in 2017.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held is first official Sunday service at the Placentia site on October 30. (Photo courtesy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zusa Pacific University's School of Education Honors Distinguished Alumni

BY RACHAEL LEE

Azusa Pacific University's School of Education honored three alumni at its first Distinguished Alumni Awards Reception which took place on October 29.

Dr. Jason Song, the principal of New Covenant Academy; Dr. Maria Armstrong, the superintendent of Woodland Joint Unified School District; and Ted Lai, the education development executive at Apple were given Impact, Influence, and Innovation awards respectively.

"Good teaching comes from the identity and integrity of the teacher," said Dr. Anita Henck, the dean of APU's School of Education, "and such are the stories we have collected in receiving nominations for our three new alumni awards."

"These stories are of individuals whose lives were influenced by many educators, who in turn as graduates have mad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generations of students," Henck said.

The three individuals were selected among more than 15,000 alumni of the School of Education.

APU's School of Education is accredited by the California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 and th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offers 25 credential, master's, doctoral, and certification programs in three department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Leadership,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and School Psychology, and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Dr. Jason Song, the principal of New Covenant Academy (NCA), was among the alumni who were honored with awards at the first Distinguished Alumni Awards Reception hosted by Azusa Pacific University's School of Education. (Photo courtesy of NCA)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Federal Court Protects Iowa Churches from Civil Rights Law on Sexuality

An Iowa church is taking back its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s of the state and the city of Des Moines after a District Court judge ruled in mid-October that churches are not public accommodations and that their religious views must not be interfered with.

Earlier this year, Fort Des Moines Church of Christ had filed a lawsuit seeking to be exempt from the Iowa Civil Rights Act, a legislation which the church felt could have compelled churches to change their restrooms and showers to unisex facilities in opposition with their religious beliefs.

The church considered establishing clear guidelines of bathroom and shower use by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eir biological sex. However, the church foresaw the legal implications of such a move by the state if such guidelines were to be reviewed by the state commission on civil rights.

"This lawsuit wa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state won't try to enforce the law against churches, and we're pleased that Iowa churches now have the reassurance and clarity that they need," said Christiana Holcomb, Legal Counsel at Alliance Defending Freedom which is representing the church in court.

The church's request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law was denied by the court, but the case was permitted to be heard in the court and subsequently the church was protected from any future government effort to regulate the churches' stance on sexuality.

Judge Stephanie M. Rose considered the city officials' claims that the legislation was not meant for churches as unsubstantiated, because there was no provision in the law to explicitly prevent the authorities from enforcing the Act on churches.

"The government acts outside of its authority when it attempts to control churches," said Steve O'Ban, senior counsel with ADF. "Neither the commission nor any state law has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to dictate how any church uses its facility or what public statements a church can make concerning sexuality."

Holcomb said that it was necessary for the church to file such a lawsuit in anticipation of any future government action on the church's freedom of expression.

"Churches should be free to talk about their religious beliefs and operate their houses of worship according to their faith without fearing government punishment," said Holcomb.

Rowan County Prayer Case to Be Reviewed by 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

BY CHRISTINE KIM

A federal appeals court reopened a case on October 31st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Christian prayers at county board meetings in Rowan County, North Carolina.

The case will be heard by all 15 members of the 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late January in response to a request from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for a rehearing.

In March 2014, the ACLU filed a lawsuit on behalf of three county residents -- Nancy Lund, Liesa Montag-Siegel and Robert Voelker -- who said that the prayers, which were predominantly Christian, that Rowan County commissioners offered at county board meetings were coercive.

In May 2015, U.S. District Judge James Beaty ruled that the practice was unconstitutional.

In September, a three-judge panel overturned the 2015 decision that deemed the prayers unconstitutional by a 2-1 vote, citing a 2014 U.S. Supreme Court ruling in which prayer at public meetings were upheld in the town of Greece, New York.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se in Greece and Rowan County's lies in the people offering the prayers. In Greece, religious leaders from different faith traditions were invited to offer prayers for the board before their meetings. In Rowan County, however, elected officials were offering the prayers themselves, with 97 percent of those prayers being from the Christian tradition.

The 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 has agreed to review the prayer case in Rowan County.

The full Fourth Circuit will review the decision that deemed the practice unconstitutional.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Persecuted Church Marked by Christians in 100 Countries

'We believe that God uses the prayers of his people to strengthen and deliver suffering saints'

November 6 was marked as the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and Christians around the world prayed for their fellow believers who are being persecuted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On the International Day of Prayer, Christians from over 100 countries came together to pray for those laborers in faith who suffer every day for the sake of the gospel.

The day was first observed in 1996 as a "Day of Prayer for Iran" when an Iranian pastor was murdered in the country. It has become an annual day of prayer when Christians lift up thei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nd join in their support for them.

Incidents of persecution of Christians are reported frequently in the international media, which recount how believers are targeted for sharing the gospel, distributing tracts, and even assembling in homes.

"From merciless killing, destruction of churches and buildings, to being forced to denounce Jesus as their Lord, Christians are being stripped of the ability to follow Christ in safety and freedom," Open Doors USA said on its website.

"Because we have freedom of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we can freely and openly worship Jesus Christ," it continued. "Let us stand in the freedom we have to pray for our persecuted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A Nigerian pastor was quoted as saying by Open Door: "Only guns of love can silence guns of hatred. What better way to love someone than to pray for them?"

Christians around the world are invited to pray for persecuted believers on the first and second Sundays of November every year.

The International Day of Prayer (IDOP) ministry has distributed devotionals, Sunday School materials, and prayer points via dropbox.

"According to statistics, persecution is the daily reality of at least 100 million Christians around the world," said Godfrey Yogarajah, Executive Director of the World Evangelical Alliance and the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These Christians, who face routine harassment and difficulties, often suffer in silence and isolation," Yogarah said. "Over the years, the IDOP has served as a platform to highlight their stories and advocate their plight. Moreover, in so doing, the IDOP has also been a source of solidarity and encouragement to persecuted Christians by reminding them that they are part of a larger, global family of believers."

"We believe that God uses the prayers of his people to strengthen and deliver suffering saints. Based on scripture, we are also convinced that though sorrow may be the present reality of those suffering for Christ, triumph is their ultimate reward," he continued.

Christian School Raided and Closed Down in Sudan

A Christian school in Sudan was closed by authorities who conducted their third raid on the school in two months in late October, according to Morning Star News.

Over 1,000 students are enrolled in the Evangelical Basic School in Al Jazirah, whose future was rendered uncertain by the officials.

The school was pioneered by American Mission in 1901, and is run by Sudan Presbyterian Evangelical Church.

The school was also raided on October 4th and September 5th. Staff members who tried to resist government action were jailed for four days, including headmaster Rev. Samuel Suliman and Rev. Zakaria Ismail who is the pastor of the church affiliated with the school.

They were released after paying a bail of about 30,000 Sudanese Pounds ($5,972).

Several reports of Christian persecution have emerged from Sudan after the partition of the nation and formation of South Sudan in July 2011.

In April 2013, the Sudanese government ceased to grant new licenses to build churches in the country.

Sudanese President Omar al-Bashir has promised to implement a strict version of sharia law and give precedence to Islamic culture and the Arabic language only.

Government officials have bulldozed Christian worship centers in Sudan and expelled Christians from the country after the secession of South Sudan.

Open Doors World Watch List 2016 ranked Sudan eighth among 50 countries which score high in Christian persecution.

In June 2015, a group of young women were arrested by Sudan's Sharia police for dressing 'indecently'. The girls were wearing trousers and dresses which the police said exposed their arms. One of the girls was sentenced to 40 lashes, but the court dropped the charges following an international outcry.

In 2013, Meriam Ibrahim was arrested for marrying a Christian man. At that time she was pregnant with her second child. Her father was a Muslim and her mother a Christian. Her father had left her family when she was 6 years old, but the Sudanese court deemed Ibrahim's marriage to a Christian man as adultery because her father was a Muslim. She was given a death sentence as well as a sentence to 100 lashes. While in prison, she was asked to recant her faith multiple times, but she refused to change her faith. She was later released from prison and given asylum in the United States.

"I put my life at risk for the women of Sudan and for Christians live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persecuted and treated harshly. There are many Meriams in Sudan and throughout the world," Ibrahim said.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a.or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